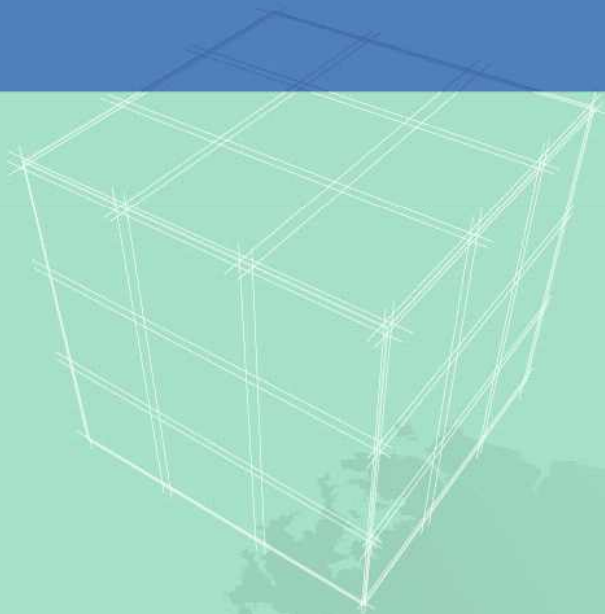


2006 출장보고서

## 북유럽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사례

백남훈 /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이형복 / 정책연구위원(지방서기관)



# 1. 출장개요

## 1. 출장목적

- 북유럽의 인적자원개발 사례조사를 통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충청남도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
-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북유럽선진국의 다양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모델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방향설정에 참고를 하고자 함
- 타 지역인적자원개발 담당자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업무협력방안 모색하고 나아가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2. 출장자

소속	출장자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백남훈 센터장
충남발전연구원	이형복 정책연구위원

### 3. 출장일정

○ 연수기간: 2006. 5. 12 ~ 5. 20(7박9일)

일자	방문지	방문기관
2005. 5. 12 ~ 13	네덜란드, 핀란드	핀란드 폴리테크닉
2005. 5. 14	스웨덴	시민교육협의회, 학습씨클
2005. 5. 15~ 18	노르웨이	오슬로시청, 오슬로대학, 네트워크 대학교
2005. 5. 19~5.20	덴마크	달룸대학교

## II. 출장내용

### 1. 핀란드

#### 1) 일반현황

- 핀란드는 지리적으로 3분된 본토 지역들과 근해의 일부 섬지역으로 이루어졌다. 대체로 높이 455~1,328m(최고봉은 할티아툰투리)에 이르는 둥근 정상형 산봉우리들이 있는 북서쪽 가장자리의 소규모 고지대를 제외하고, 이 나라는 해발 180m 이하의 저지대이다.
- 고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부 및 남부 해안을 따라 너비 32~96km로 펼쳐져 있는 해안지대로 이 지역의 고도는 대체로 18m가 안 된다. 남서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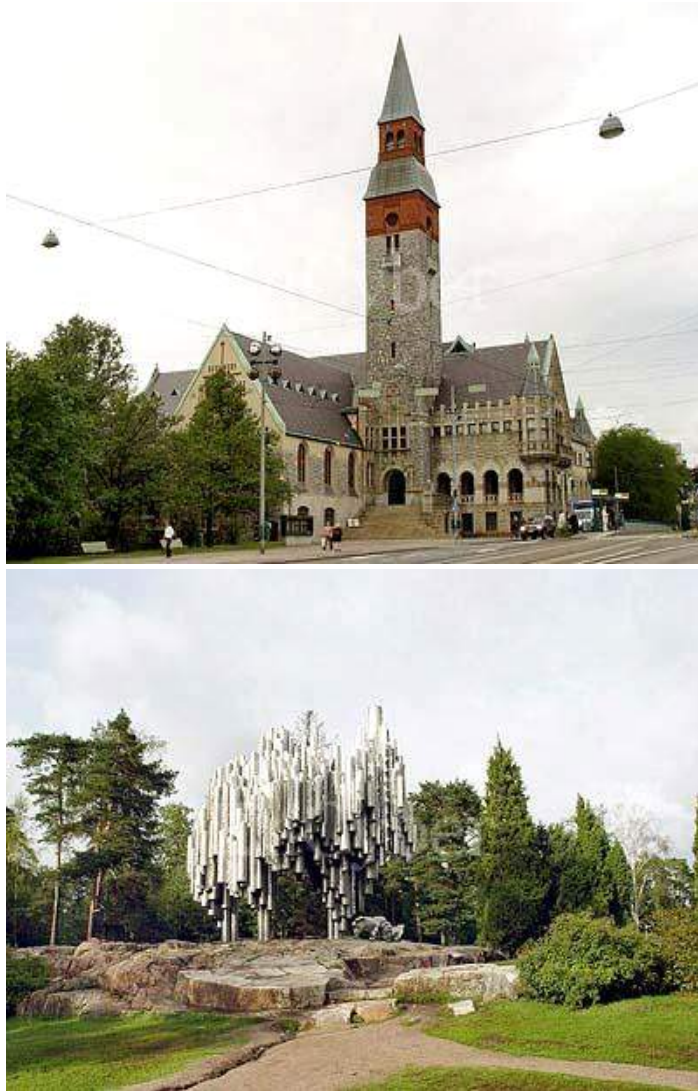
해안선에서 수km 떨어져 올란드 제도(아베난마)를 이루는 섬들은 해안 저지대의 연장부이다.

내륙지역은 해발 45~180m에 이르는 북부 고지대에서 점차 경사져 낮아지면서 남부의 광활한 호수지역(해발 18~45m)으로 이어진다. 전국토 면적의 1/10에 해당하는 내륙수계는 면적 3만 3,522km<sup>2</sup>로 벨기에 국토 면적과 비슷하다.

- 5만 개가 넘는 호수들은 대부분 면적이 25km<sup>2</sup> 이하의 작은 규모이며, 가장 큰 호수는 남동부에 있는 사이마 호(약 4,400km<sup>2</sup>)이다. 핀란드의 하계(河系)는 대부분 호수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이마 호는 부오크시 강을 경유하여 동쪽으로 흘러 러시아 연방의 국경선 근처에 있는 라도가 호로 흘러든다.

#### ○ 주요특징

- 인구: 5,185,000.
- 인구밀도: 17.0명/km<sup>2</sup>.
- 도시·농촌 인구분포: 도시 60.4%; 농촌 39.6%{4}.
- 성별분포: 남 48.79%; 여 51.21%.
- 연령별분포: 15세 미만, 18.2%; 15-29세, 18.7%; 30-44세, 21.8%; 45-59세, 21.5%; 60-74세, 13.4%; 75세 이상, 6.4%.
- 예상인구: 5,252,000(2010년); 5,292,000(2020년).
- 언어구성: 핀란드어 97.5%; 러시아어 0.6%; 스웨덴어 0.5%; 기타 0.2%.
- 종교분포: 복음주의 루터교 85.2%; 핀란드(그리스) 정교회 1.1%; 무교 12.6%; 기타 1.1%.



< 핀란드 국립박물관 / 시벨리우스 공원 전경 >

- 핀란드는 인구 520만명에 불과한 유럽의 작은 국가이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강소국이다(2004년 IMD 경쟁력순위 8위, WEF 경쟁력순위 1위). 핀란드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학기술과 교육훈련에서의 경쟁력이 핵심요인이다. 핀란드는 과학기술강국, 인적자원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핀란드의 혁신역량과 교육시스템, 대학배출인력의 질, 기업의 재직근로자 교육훈련 등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정평이 나 있다.

- 2003년 핀란드의 노동인구는 약 260만명, 실업률은 9.1%였다. 프랑스나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실업률이 낮지만, 미국(6.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7.1%)보다는 높다. 장기실업은 줄어들고 있지만 구조적 실업이 여전해 인력부족 속에서도 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고용증대를 경제 및 노동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 핀란드의 교육제도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 기본적으로 기초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으로 구분된다. 기초교육은 7살에 시작해서 9년 동안 이루지고, 의무교육이다. 중등교육은 인문학교와 직업학교로 나누어지고, 인문학교에서는 3년 동안 일반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3학년에 대학입학자격 시험을 쳐야 한다. 모든 인문학교는 국가 핵심교육과정을 따라야 하지만 최근에는 각 학교의 특색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 2) 인적자원개발 사례

- 폴리테크닉
  - 고등교육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시장을 단순화하면서 동시에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바로 폴리테크닉이다.
  - 경제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인데, 고등교육에서도 그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시장을 단순화하면서 동시에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즉 전문대학을 비롯한 직업교육기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고등교육체제로 개편하는 체제이며, 이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바로 폴리테크닉(Polytechnics)이다. 폴리테크닉은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재빠르게 적응토록 만들어진 대학이다. 특히 핀란드의 폴리테크닉은 경쟁력이 뛰어난 시

시스템을 자랑한다.

- 교육목표는 '산업사회 전문인력 양성'으로 명료하며, 교육프로그램도 수업연한에 따라 다양하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도 산업현장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교수진도 산업체 유경험자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과 핀란드의 폴리테크닉이 대표적이다. 특히 핀란드처럼 작은 나라가 노키아같이 세계 일류의 제품을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도 바로 폴리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선진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고등교육제도를 개혁하여 일반대학과 폴리테크닉의 단순화한 이원적 시스템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직업학교에서는 학교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직업교육과 직업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실습 비율을 높이고 있다. 직업학교도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대학교육은 대학과 폴리테크닉으로 구분되고 대학교육이 연구와 교수에 초점을 맞춘다면 폴리테크닉은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 ○ 인적자원개발 제공자로서 기업의 역할강조

- 핀란드에서 성인 대상의 교육훈련은 재직근로자 훈련(PT·Personnel Training), 자기주도적 성인 직업훈련(SMT·Self-Motivated Adult Training), 노동시장훈련(LMT·Labor Market Train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지아 레미넨 핀란드 노동부의 노동력개발·지도팀장은 “과거에는 이들 훈련과정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했으나, 최근에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중첩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재직근로자 훈련은 평생학습 시스템 아래 기업에서 제공되는 교육훈련을 의미한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인적자원의 경쟁력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이 교육훈련의 최종수요자로서가 아

나라 적극적인 교육훈련의 제공자로서의 기업의 역할 변화가 요구된다.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중요하며,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기업 내 교육훈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IMD보고서는 핀란드를 재직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교육훈련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로 꼽았다.

- 핀란드 수출액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노키아(Nokia)의 경우 인적자원개발은 기업의 핵심전략으로서 강조된다. 안나 타비스 노키아 인사담당 부사장은 “최고의 인재들을 채용,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최고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노키아의 인사관리 전략”이라고 말했다. 총급여액의 3~4%를 교육훈련비로 투입하며, 근로자 1인당 연간 70시간 안팎의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교육방식은 정규교육훈련과 상급자의 지도(mentoring), 현장학습(talent management system)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와 상급자, 인사담당 관리자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에 의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 대학 교과과정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요 대학들과 다양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핀란드에서도 중소기업의 교육훈련투자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따라서 핀란드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 확대를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인력부족 때문에 근로자를 생산현장에서 빼내 교육훈련을 제공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노동부는 ‘직무순환(Job Rot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체근무에 대한 비용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외부기관에 위탁교육 보내는 동안 정부가 실업자 풀(pool)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해준다.

이와 함께 개별 중소기업에서 교육훈련을 하기 어려워므로 소규모 사업장의 훈련수요를 취합, 훈련기관에서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의 집합적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 ○ 성인학습

- 핀란드에서는 성인학습에서도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학습권이 확립되어 평생학습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재직 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학습휴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업은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휴가기간 중 고용은 보장된다.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면에서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핀란드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다. 학습휴가 동안에는 기술직업대학인 폴리테크닉(Polytechnic)이나 대학에서 정규교육을 받거나 기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기도 한다. 대학·폴리테크닉은 기업과의 산학협동이 활발해 교육훈련의 현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노동시장훈련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부로서 성인 인구의 직업능력 향상, 인력수급의 균형 유지 및 촉진, 실업과 인력부족 해소 등에 목적이 있다. 노동시장훈련은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의 양적·질적·지역적 수요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근본적으로 성인들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의 성격을 갖는다. 주로 실업자 대상의 훈련이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사람이나 재직근로자도 훈련대상이 될 수 있다.
- 직업훈련은 현재 200개 이상의 다양한 직업 영역에 걸쳐 연간 4000~5000여개의 훈련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노동부의 재정지원 하에 성인훈련센터나 폴리테크닉, 기타 직업교육기관 등에서 연간 6만 4000여명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노동시장훈련은 숙련수요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지역 단위에서 설계되며, 훈련과정의 70%가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자격제도와 연결돼 있다. 훈련 이수생들은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훈련과정을 평가하는데 3분의 2 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 3)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능대학이 한국 폴리텍 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기술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직업훈련과정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할 수 없었으며,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직접 필요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급하고 재직근로자의 평생학습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교육훈련체제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고 하겠다.

## 2. 스웨덴

### 1) 일반현황

- 공식이름은 스웨덴 왕국으로, 노르웨이와 함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해 있다. 국민은 인종·언어·종교면에서 두드러진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식언어인 스웨덴어는 북독일어군에 속하며 노르웨이어·덴마크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구성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으며, 1990년대 초까지 주민의 1/10이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민자들의 자녀였다. 이민자 대부분은 다른 북유럽 국가 출신이고, 나머지 소수는 라틴아메리카·중동·유고슬라비아·터키·그리스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스웨덴에는 두 부류의 소수 원주민이 있는데, 하나는 북동부 지역의 핀란드어를 쓰는 민족이고, 다른 하나는 북부 내륙의 라프족(사미족)이다. 인구의 90%가 스웨덴 복음주의 루터교 신자이며 나머지는 로마 가톨릭교, 그리스 정교회, 이슬람교 신자들이다.



<스톡홀름 항만 전경>

- 경제적으로 스웨덴은 주로 서비스업 · 중공업 · 국제무역 등을 기초로 한 선진화된 시장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다. 국민총생산(GNP)이 인구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1인당 GNP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 사회복지 및 교육

- 외국인들이 스웨덴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 및 부의 평등 분배와 같은 준(準)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현대 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했는데 비용은 개인 소득에 대한 세계 최고의 세율에 의해 충당된다. 사회보장제도는 거의 무제한적인 혜택을 주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료보험 제도는 진료비의 거의 전액을 부담한다. 그러나 대도시 주변이나 도시에서는 신축 · 개축 계획에도 불구하고 주택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문자 해독률 100%가 말해주듯이 교육제도는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7세에 입학하는 종합학교는 9년간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며 1991년부터는 6세 아동까지 확대되었다. 그밖에 수많은 주요대학과 전문대학이 있다.



<노벨 박물관 전경>

## 2) 스웨덴의 학습서클

- 스웨덴의 인적자원개발의 출발점은 성인교육에서 시작되었다. 성인교육은 스웨덴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세기 초 첫 국민고등학교가 덴마크를 모델로 세워졌고, 19세기말 대중성인운동의 결과로 첫 토론 사회와 학습 씨클이 시작되었다.
- 학습씨클(learning circle)이란 스터디서클(study circle) 또는 호주의 학습 동아리 또는 일본의 자주학습조직(自主學習組織)과 유사어로써, 같은 주제에 관심있는 성인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소모임을 지칭한다. 보통 5명-15명 내외의 성인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관심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다. 나라마다 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본래는 같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 부딪치는 문제에 대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찾거나 생각해보는 이슈 중심 토의가 중심이다.

- 20세기초반 스웨덴에는 시와 개인의 노력으로 많은 기술야간학교, 상업전문대학, 직업학교들이 생겨났다. 특수 야간과정은 많은 성인 단체에 의해서 생겨났고, 성인을 위한 두개의 주립학교(SSV)가 생겼다. 이 중 하나는 Norrköping(1956)에 하나는 Harnosand(1962)에 성인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 1960대와 1970년대의 교육개혁

- 세계2차 대전이후 스웨덴 학교제도는 개혁되었다. 9년제 의무교육이 도입되었고 상급중등교육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1960년대,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하였고,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의 차이가 점점 명확하게 되었다. 교육의 중요한 개혁은 1968년 시작되었다. 각 시에서는 상급중등학교에서의 의무교육에 상응하는 성인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교육은 스웨덴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 이후 교육은 사회에서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1970세기초 국가는 재분배 정책을 중점화 하였다. 이런 계층의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회교육이 개혁하였고, 학습휴가의 권리가 법률화되었다. 1970년대 시차원의 성인교육이 놀라운 증가를 보였고, 1982년 그것은 커리큘럼(Lvux 82)을 갖는 교육제도가 되었다.

#### ○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교육개혁

-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초반, 교육제도에서의 책임의 분화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 승인 제도에서 탈중앙화, 교육목표와 제도에서의 지방자치화를 의미한 변화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커리큘럼(Lpo82)이 이전것(Lvux82)으로부터 발전되어 나왔다.

1991년 스웨덴 국회는 이전까지 모든 성인 교육을 담당했던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를 해산하였다. 이 책무는 여러 부서로 나누어졌다. 1996년 노동시장을 위한 훈련은 새로운 독립부서 the Labor

Market Board로 넘어갔고 국민고등학교는 정부에 의해 새로운 비 상업적 기관인 the Swedish National Council of Adult Education 의 설립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이전의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대신 세워진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은 시와 주정부의 성인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제도 전부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 3) 시사점

- 스웨덴의 학습씨클은 최근 우리나라 평생학습도시들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학습동아리형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교육정책개혁과 지역의 기술대학과 직업학교 등과 적절히 연계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3. 노르웨이

### 1) 일반현황

- 노르웨이의 총면적은 약 32만 4000km<sup>2</sup>이며, 국토의 30%가 북극권에 속해 있다. 수도는 오슬로(Oslo)로, 인구는 약 64만 명.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서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동부는 북쪽으로부터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과 접하고 있고, 서부는 노르웨이 해, 북해와 접해 있다. 나라의 형태가 남북으로 좁고 길어서 가장 좁은 부분은 폭이 6.3km밖에 안 된다. 섬은 약 15만 개이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200여 곳에 지나지 않는다.
- 북유럽 국가 중에 비교적 국가 통일이 늦은 편으로, 872년에야 비로소 여러 지역이 합쳐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했다. 그 후 14세기경 ‘칼마르 연합’에 따라 덴마크 왕이 스웨덴, 노르웨이 왕을 겸하게 되었다. 1523년 스웨덴은 덴마크로부터 독립했으나, 노르웨이에 대한 덴마크의 지배는 19세

기까지 계속되었다. 1814년 킬 조약에 따라 스웨덴의 지배에 들어가게 된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왕을 겸하고 있던 스웨덴 왕 카를 14세 밑에서 노르웨이 헌법을 제정하였고, 마침내 1905년 국민투표로 독립을 선언하고 호콘 7세를 노르웨이 국왕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침략을 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서방 선진국의 일원으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보여 주고 있다.

- 6~8월에는 오슬로의 한낮 기온이 30℃ 이상 치솟지만, 내륙의 산림지역은 꽤 서늘하다. 특히 북부 지역은 두툼한 스웨터가 필요할 정도다. 겨울에는 바다와 접한 곳은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북극권 지역으로서는 따뜻한 편이지만, 내륙부는 상당히 추운 특징을 나타낸다.



<베르겐 항 전경>

#### ○ 주요특징

- 수도: 오슬로(Oslo)
- 인구: 약 428만명
- 면적: 324,000km<sup>2</sup> (한반도의 1.6배)
- 언어: 노르웨이어(영어도 가능)

- 민족: 노르웨이인이 대부분, Sami족(1%)
- 종교: 루터파 크리스트교

## 2) Network University 및 원격교육

- 노르웨이는 원격교육에 대한 정치적 관심으로 1948년에 독립된 법으로 민간 원격교육을 규제한 세계 첫 번째 국가이다. 이에 따라 원격교육과정과 원격교육 기관에 대한 정부감독이 강화되었다. 1993년에는 통신학교법이 폐기되었으며 독립적인 원격교육 기관 활동에 대한 규제는 성인 교육법 아래 두었다. 이러한 개혁으로 원격교육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체계로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교육부가 공인한 원격교육 기관은 대략 20개이며, 가장 큰 두개의 원격교육 기관인 NKS 원격교육과 NKI원격교육은 비영리 기관이며 매년 원격교육과정 등록자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전체 등록학생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 노르웨이에서 사립원격교육의 지위는 특이하다. 역사적으로 노르웨이의 원격 교육은 민간기관에 의해 시작되었다. 1941년에 세워진 North Korrespondanseskole(NKS)는 노르웨이의 첫 번째 원격교육 기관이었다. 오늘날 NKS에는 중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코스에 연간 70,000명의 학생이 등록하고 있다. North Korrespondanse Institute(NKI)에는 기술, 직업, 행정 분야에 집중된 코스에 연간 45,000명이 등록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인쇄가 원격 교육의 유일한 매체였던 시기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오디오, 비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컴퓨터 매개통신 등의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 NKS와 NKI는 최근에 원격 학습을 위한 다양한 비디오컨퍼런스 시스템 유형들의 활용을 알아보고자 노르웨이 통신과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다.
- 노르웨이 정부는 원격 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1948년



에 통신 프로그램과 기관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였고, 1975년에는 국가 학점 이수 학교의 통신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77년에는 노르웨이 원격교육 기관(Norwegian State Institution for Distance Education : NFU)을 창설하였다. NFU는 전국의 방송사, 출판사, 공립학교, 대학들과 연계하여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에 있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1년에는 NFU가 원격 교육 코스의 멀티미디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약 20여개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 학점이수 통신 학교 협회로서 1968년에 설립된 노르웨이 원격 교육 협회(Norwegian Association for Distance Education : NADE)는 1984년에 NFU와 SOFF처럼 원격 교육에 관련된 모든 기관을 포함하여 재조직되었다. 1988년에는 NFU, NKI, NKS에 의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노르웨이 원격교육센터(Norwegian Center for Distance Education : SEFU)가 세워졌다.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1988년에 오슬로에 ICDE의 상임 사무국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다.

### 3) 시사점

- 노르웨이는 교육부에서 공인한 원격교육 시스템과 네트워크 대학 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기술, 직업, 행정분야의 집중코스를 개설하고 이를 전국의 방송사, 출판사, 공립학교, 일반대학들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국가경제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4. 덴마크

### 1) 일반현황

- 유럽 북부의 유틀란트 반도 및 그 동쪽 해상의 셸란·롤란·핀 등 다수의 부속도서(附屬島嶼)로 구성된 왕국(王國)으로서 면적은 4만 3094km<sup>2</sup>, 인구

는 537만 7000명(2002)이다. 인구밀도는 124.8명/km<sup>2</sup>이다. 덴마크어로는 단마크(Danmark)라고 한다.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이고 수도는 코펜하겐이며, 공용어는 덴마크어이다.

○ 북해(北海)와 발트해를 가르는 곳에 위치하여, 남쪽으로는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북쪽으로 스카게라크 해협, 동쪽으로 카테가트 해협을 끼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스웨덴과 대한다. 해외 영토로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가 있다.

○ 기후는 남쪽의 북아틀란틱 해와 겔프 만으로부터 난류가 흘러 들어옴에 따라 북쪽 지방의 겨울철 기온을 높여 주며 여름철에는 오랫동안 구름 없는 날씨가 계속되어 기온이 35.8℃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년 중 가장 추운 달은 2월로 평균 기온이 -0.4℃이며 가장 따뜻한 달은 7월로 평균 기온이 16.6℃로서 전형적인 섬 기후를 보여 준다. 연 강수량은 600mm이며 1년 중 8, 9월에 비가 가장 많이 오고 봄,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덴마크는 1년 내내 평균 초속 7.6m의 시원한 바람이 부는 나라이기도 하다.

#### ○ 주요특징

- 위치 : 유럽의 유틀란트 반도
- 면적 : 4만 3094km<sup>2</sup>
- 인구 : 537만 7000명
- 인구밀도 : 124.8명/km<sup>2</sup>
- 수도 : 코펜하겐
- 정체 : 입헌군주제
- 공용어 : 덴마크어
- 통화 : 덴마크 크로네(Dkr)
- 환율 : 7.56덴마크 크로네 = 1달러
- 1인당 국민총생산 : 3만 2280달러



<코펜하겐 시청 앞 전경>

## 2) 인적자원개발 사례

### ○ 기업교육: 학습하는 노동자에게만 복지혜택을

- 덴마크는 국가 생존을 위해 기업에서 자생적으로 인적자원개발 모델을 개발하였다. 즉 기업에서는 사(使)측이 원하는 대로 고용의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해고된 노동자는 직업 훈련을 통해 새 일자리를 바로 찾아줘 결과적으로 안정성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른바 ‘유연한 안정 (Flexicurity=flexibility와 security의 합성어)’ 모델로 실업률을 낮추고 창조적 공존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 ○ 달룸대학교의 직업교육

- 코펜하겐에 있는 이 학교의 ‘농업 경영전문가 과정’은 덴마크에서 손꼽히는 농업 관련 직업교육으로 유명하다. 이 과정에는 외국인이 비교적 쉽게 입학할 수 있지만 학사관리가 엄격해 입학만큼 졸업이 쉽지는 않다. 아스게르 클라우센(61) 부학장은 “입학생 40명 중 10%인 4명 정도는 중도에 포기하고, 12%인 4, 5명은 최종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 ‘농업 경영전문가 과정’ 졸업생이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덴마크 농업의 특수성이 놓여 있다. 덴마크 농업은 크게 낙농과 양돈의 두 가지 부문. 두 부문 모두 국내 소비량의 400~500배에 이르는 농산물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한다. 튀게 모르텐센(46) 교수는 “덴마크 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도 비싸다”고 스스럼없이 말했다.

이렇다 보니 덴마크에서는 아무나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9년간의 초·중·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마친 뒤 농업 직업학교를 나와야 한다. 농업 직업학교에서는 ‘2개월 수업→12개월 실습→5개월 수업’의 1과정과 ‘17개월 실습→6개월 수업’의 2과정이 개설돼 있다. 1, 2과정을 차례로 마쳐야 비로소 ‘국가공인 보통 농부’로 인정돼 농장 운영이 허용된다. 보통 농부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장 경영에 관해 배울 수도 있다. 물론 단순 농업 노동자라면 직업학교까지 마칠 필요는 없다. 덴마크에서는 모두 17개의 농업 직업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 경영전문가 과정’은 ‘덴마크 농부 수업’을 국제화시켰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학생들은 2년간 크게 농학과 경영학의 두 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된다. 1학년 때는 생물학과 경제학 경영학 마케팅 등을, 2학년 때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생 각자가 주제를 선택해 심화 학습한다.

특히 ‘농업 경영전문가 과정’ 졸업생들은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졸업생들은 국가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일해야 하므로 영농과 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의 다양한 주제를 영어로 익히게 된다.

- 영어교재들도 각국의 문화 차이를 미리 익힐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중국 출신의 1학년생 왕펑(王鋒·25) 씨는 “덴마크의 높은 농업수준뿐만 아니라 영어를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어 좋다”며 “졸업 후 귀국하면 영어 실력을 토대로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학교에서는 이론을 위주로 공부하지만 1, 2학년 말에 각각 한 차례씩

덴마크의 농업 관련 기업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약 2개월간 실습할 기업을 선택할 때는 학생들의 의사가 거의 전적으로 반영된다. 학교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케냐 출신의 1학년생 폴 은잠와야(33) 씨는 “실습 과정에서 익힌 여러 가지 노하우를 조국에 돌아가 농장을 경영하면서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 ‘농업 경영전문가 과정’에서는 1, 2학년 말에 각각 한 차례씩 시험을 치른다. 1학년 말 시험 때 적어도 6점(최고는 13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2학년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다. 2학년 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열심히 할 것인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최후통첩’을 받은 뒤 두 차례 더 응시 기회를 제공받는다. 만약 세 차례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1년간 다시 수강해야 한다.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학하려면 토플 성적이 560점(CBT 220점 상당)을 넘어야 한다. 지난해 9월 시작된 2005~2006학년도까지는 유럽지역 출신이 아닌 학생들은 2년 과정의 학비로 입학금 1만 크로네(약 156만 원)만 내면 됐다. 덴마크 출신 학생들은 아예 학비를 내지 않는 게 원칙. 그러나 2006~2007학년도부터는 덴마크 정부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없애 총학비가 9만 크로네(약 1400만 원)로 크게 오른다. 졸업생들은 농업 컨설턴트 또는 농업생산 관리자 등으로 활동하거나 개발도상국의 농업계획에 참여하기도 한다.

### 3) 시사점

- 덴마크의 사례는 인적자원개발 영역에서 기업과 대학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중요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책적으로도 기업의 노동자에게 지속적인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 과정을 선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차원을 넘어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유용한 모델을 부여주고 있다고 하겠다.